

제5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 축하 메시지

제5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를 축하합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산업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산물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수산 분야 무역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올해 300개소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을 비롯한 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있고, 정부의 수산자원 회복계획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희망의 근거는 바로 수산업 경영인 여러분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선진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 수산업은 반드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희망과 열정으로 풍요로운 바다,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어

감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겁고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